

한국 전통  
혼례품 수젓집의  
시각성과 의미  
Visual  
Characteris-  
tics and  
Significance  
of *Sujeojip*,  
Korean  
Traditional  
Wedding Item

한승민  
Han Seungmin

홍익대학교 캠퍼스자율전공학부  
BFA Program, College of Liberal Studies,  
Hongik University

- 서론
- 본론
  - 조선 말기의 수젓집
  - 일제강점기의 수젓집
  - 광복 이후의 수젓집
- 결론

특집 기획 연재 Special Serial Features

지도교수: 김소연  
Supervisor: Kim Soyoun

투고일 2024년 6월 30일 / 심사일 2024년 7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5일 / 게재일 2024년 8월 30일  
Received Date 30 June, 2024 / Reviewed Date 22 July, 2024 / Accepted Date 5 Aug, 2024 / Publishig Date 30  
Aug, 2024 /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  
208-  
213

## 1. 서론

수젓집은 한국의 전통 혼례품 중 하나로서 이 연구는 이러한 수젓집이 한국의 혼수 및 예단 문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젓집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품으로, 지금까지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수젓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혼례품이었던 수젓집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점차 잊혀 가는 실정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간 경시되어 왔던 수젓집의 디자인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혼례 문화에 내재한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 대상은 수젓집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 말기부터 광복 이후 수젓집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수젓집들이다. 이 광범위한 연구 시기를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수젓집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수젓집이 어떻게 차별화되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수젓집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Introduction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Sujeojip*,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item that includes a pair of chopsticks and a spoon, in the context of Korean wedding culture. Despite the various designs of *Sujeojip*, the design aspect has been largely overlooked. This study aims to reassess the design value of these utensil sets and shed light on the deep-rooted values and meanings within Korean wedding culture. Moreover,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gradually diminishing in modern society. The research span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spoon sets first appeared, to the gradual decline of spoon sets after liberation. It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ost-liberation period, with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fferentiation and evolution of spoon sets within each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ual changes.

왼쪽부터  
 [그림 1], [그림 2], [그림 3]  
 조선 말기 수젓집(작가 미상)  
 - 오방색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음  
 - 형태와 색채 등이 자유분방함  
 - 동물 대신 대부분 식물 위주의 문양을 사용함  
 -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  
 (출처: 이뮤지엄)



## 2. 본론

### 2.1. 조선 말기의 수젓집

1800년대 후반부터 1909년까지의 조선 말기에 발견된 수젓집들은 개성이 두드러졌다. 이후 수젓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색상의 수젓집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보통 수젓집에 사용한 색은 오방색이 보편적이었지만,<sup>1)</sup>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분홍색, 갈색, 남색 등 다른 색상도 사용되었다. [그림 3]과 같은 수젓집은 단순하고 절제된 구성이 눈에 띈다. 문양이 적고 여백이 돋보여 차분한 인상을 준다. 수젓집의 크기와 모양도 다양했다. 길이와 너비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지만 동일하지 않고, 특히 위 덮개의 모양이 반원, 삼각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선 말기에는 창작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자유로운 디자인이 많았는데, 같은 양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성을 보였다.

1) 이창원, 『조선 시대 다산(多産)문양의 현대적 해석과 텍스타일 디자인 적용』, p.22

## 2.2. 일제강점기의 수젓집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수젓집들은 이전에 비해 균일화된 형태와 디자인을 보인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수젓집들이 이 시기에 들어서는 비슷한 모양과 형태를 띤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개의 수젓집에서 공통적인 구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상단에는 하늘을 나는 두루미 한 쌍, 중심부에는 식물 문양, 하단부에는 두루미와 새들이 그려져 있는 통일된 구조를 보인다.<sup>2)</sup> 다만 색상이나 문양의 일부 변화를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혹은 정해진 양식의 수젓집 디자인이 존재했거나, 같은 창작자가 여러 명의 자녀를 시집보낼 때 유사한 작품을 만들었을 가능성, 혹은 윗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이창원, 『조선 시대 다산(多産)문양의 현대적 해석과 텍스타일 디자인 적용』, p.6

[그림 4]

일제강점기 수젓집(작가 미상)

- 크기와 형태가 균일화됨
  - 통일된 문양과 구조가 많이 발견됨
  - 같은 구조를 사용하면서 색채를 달리 하거나 문양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창작자의 개성을 드러냄
- (출처: 이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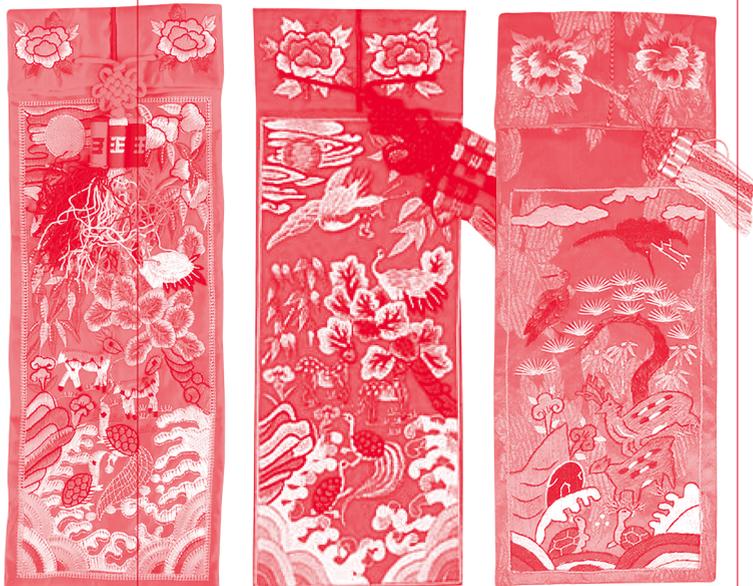
### 2.3. 광복 이후의 수젓집

광복 이후에 발견된 수젓집에서는 보다 통일된 디자인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위 덮개 부분에는 한 쌍의 모란 혹은 연꽃을 자수로 표현했는데, 이는 각각 부귀와 다산을 뜻했으며 수젓집 뒷면에 많이 쓰인 사자성이 부귀다남(富貴多男)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은 수젓집과 같이 붉은 색을 주로 활용해 제작했던 활옷 등 다른 혼례용품에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전통 혼례용품 간의 디자인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 발견된 다수의 수젓집에서 한 쌍의 학, 사슴 및 거북이 등의 통일된 문양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널리 사용되던 대표적인 디자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젓집들은 모양과 크기가 상당히 균일화되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어 이전의 수젓집들에 비해 더욱 화려한 인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정해진 규격과 디자인에 맞춰 수젓집을

만들어내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광복 이후 수젓집의 디자인은 점차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전통적인 수공예품이 점차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광복 이후 수젓집(작가 미상)  
 - 대부분의 수젓집이 붉은색을 배경으로 활용함  
 - 위 덮개 부분이 모란과 연꽃 등의 문양으로 통일된 구조가 많이 보임  
 - 한 쌍의 학, 사슴 및 거북이 등의 통일된 문양 사용  
 -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 사용으로 다른 시대 수젓집에 비해 비교적 가득 차 보이는 디자인  
 (출처: 이뮤지엄)

### 3. 결론

수젓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변해갔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수공업품이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래 진행한 연구는 수젓집의 역사와 함께 수젓집이 전통 혼례품으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화하는 혼인 문화<sup>3)</sup> 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삶에서 전통 수공업품으로서<sup>4)</sup>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뤘다. 그러나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이번 원고에서는 시각적 분석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수젓집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가 부족했고, 잘 보존된 자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남아있는 자료마저 제작 시기나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수젓집 및 전통 혼례품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46

### 참고문헌

- 문예은, (2019), 『근현대시기 한국 여성의 수공예 실천과 그 의미변화』, 전북대학교
- 이창원, (2020), 『조선 시대 다산(多産) 문양의 현대적 해석과 텍스타일 디자인 적용』, 동의대학교
- 임영주, (1983), 『한국 문양사』, 미진사
- 류미선, (2017), 『오방색을 통해 본 한국 근대 회화 연구』, 계명대학교
- 이영수, (2012),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아시아문화연구

3)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p.155

4) 문예은, 『근현대시기 한국 여성의 수공예 실천과 그 의미변화』, p.144